

능호도 없는 망국의 황제 부인 능에 함께 잠들다

60 26대 고종과 명성황후 - 흥릉(2)

일본공사관 밀실에서는 미우라 공사, 스기무라 후카시(공사관 서기), 오카모토 류스노케(공사관부무원 겸 조선군부고관), 구노세 사치히코(포병중좌) 등이 황후 시해에 관한 구체적인 음모를 확정했다. 이 시기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처를 경복궁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청궁으로 옮겼다. 그리고 궁궐에 외국인이 있으면 그들의 눈을 의식해 일본이 함부로 위협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복궁 내에 서양식 건물을 짓고 외국인들이 머물게 했다. 이 서양관은 궁궐 수비 책임을 맡았던 몇몇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생활공간이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그날 숙직이었던 외국인이 없었다면 일본의 만행은 감쪽같이 숨겨졌을 것이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친일세력인 흥륜대를 해산시키려 했다. 마침내 시해사건 하루 전 흥륜대 해산 명령이 떨어진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우라 공사는 작전명 '여우사냥' 을 이를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이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최초의 총성이 울린다. 이것이 신호탄이었다. 일본의 군인, 외교관, 언론인, 거류민 등 삼기등등한 남인(倭人)들로 구성된 암살단을 앞세운 일본 군대는 궁궐의 추성문(秋成門·북서문), 춘생문(春生門·북동문)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공격한다.

궁궐 전방과 후방에서 예상치 못한 일제의 습격을 받아 궁궐은 아수라장이 됐다. 수비대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약 15분만에 일본군에 의해 장악됐다. 총성이 울린 시각으로부터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불과 45분 걸렸다. 수비대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은 그들이 일본식 훈련을 받고 일제와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싸움 생각이 없던 세력이었다.

궁궐문을 뚫고 들어온 일본군대가 찾은 곳은 건청궁(乾淸宮)이었다. 평소 일본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명성황후는 궁궐의 가장 깊숙한 건청궁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건청궁의 서편에는 고종의 침전인 장안당이, 황후의 침전인 옥호루는 그 동쪽에 있었다. 곧 이어 40~50명의 일본인 패거리들이 관령함(坤寧閣·玉壺閣)을 에워싸고 황후 수색에 혈안이 됐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가 바로 옥호루다.

1895년 음력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 난입한 일제 남인들은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강간한 후 처참하게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만행을 저지른다. 이 사태는 인간으로서, 아니 국가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사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오늘날까지 순박하다고 하늘을 가리듯 일본과 무관한 사태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박종호 前 교수(모스크바대)가 1995년 러시아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속 제정러시아 대외정책국에서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기록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고한 문서를 찾

아내 이를 공개했다. 그리고 2001년 11월 KBS는 이를 역사스페셜을 통하여 방송함으로써 명성황후 시해사건 전말은 날날이 밝혀지게 됐다.

이 문서는 당시 카를 이바노비치 웨베르(Karl I. Waeben) 주조선 러시아 대리공사가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A4 용지 무려 300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보고서에는 사건 발생 직후 고종이 발표한 성명서, 前 대한제국 러시아 공사 이범진(李範晉), 당시 궁정경비대 부령이었던 이학군(李學均), 한상궁,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러시아인 건축기사 세르진 사바틴(A.J.Seredin Sabatine) 등 당시 궁내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록, 주한 외교 공사들의 회의록과 당시 신문자료 등 다각도의 정보와 증거 자료가 첨부됐다.

웨베르는 이 보고서에서 황후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본 남인들은 황후마마가 복도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바닥에 쓰러뜨리고, 가슴 위로 뛰어 올라 세 번 짓밟고 칼로 시해했다. 몇 분 후 시신을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갔으며 얼마 후 그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고 적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시해 현장에서 일본 행동대와 맞닥뜨린 건축기사 사바틴의 중요한 증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내말을 듣지도 않고 황후가 어디 있는지, 황후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즉 시해범들은 황후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총칼로 무장한 일본 남인들은 황후를 찾으려고 황제의 침전에 쳐들어온 것을 꾸짖는 고종의 어께에 무례하게 손을 얹어 폭행하고 주저앉혀 고종의 어의(御衣)가 찢겼고, 태자의 상투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칼등으로 목졸기를 후려치는 행패를 부려 의식을 잃게 했다.

특히 고종이 목격한 증언서에는 칼을 들고 황제의 내실에 침입한 남인들의 이름을 거명했다. '침의 눈앞에서 일본인들, 오카모토 류노스케와 前 조선 군부의 고문 스즈키, 와타나베가 칼을 빼 들고 궁궐로 쳐들어 왔고 조선 군부대신 고문관을 지낸 오카모토와 스즈키가 황후를 잡으러 나왔다'고 진술하다 말고 '실신했다' 라고 보고서에는 기록하고 있다. 일제 남인들이 황후를 잡겠다고 나간 뒤에도 고종은 황후가 무사할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황제의 처소에 일본군 침입 사실을 알리려 달려간 이학군 연대장이 '황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자 고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황후는 지금 안전한 장소에 있다.' 그러나 그 시간 황후의 처소인 옥호루에서는 이미 참담한 학살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상궁은 이렇게 증언했다. '왜인들이 황후와 궁녀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다쳤다. 일본군은 궁녀들을 밀치며 황후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입을 모아 여기에 황후는 없습니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왜인들은 (옥호루) 아래로 궁녀들을 집어 던졌다. 이때 황후가 복도로 도망쳤고, 한 왜인이 황후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다. 그는 황후를 마룻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을 발로 세 번 짓밟았다. 그리고는 칼로 가슴을



보존이 잘 된 흥릉 제실.

내리 찢었다.'

사바틴은 보고서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새벽 5시경 궁정 서쪽에서 총소리가 들려 황후의 처소로 급히 가니 25명가량의 일본 남인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 중 절반가량이 황후의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뜰에 서 있는 동안 일본인들은 10~12명가량 되는 여인들의 머리채를 끌고 와 창문 너머 마당으로 이들을 내던졌다. 창문의 높이는 6피트(1m80cm)쯤 되는 듯했다. 마당에 나뉠수는 여인들은 아무도 신음소리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았다.'

일본 남인들이 황후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궁내 신하(궁내부 대신 이경직)들이 막자 칼로 팔을 베어 버렸다. 황후가 상궁 옷을 입고 상궁 무리 안에 섞여있어 누가 황후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자 일본 남인들은 한 명씩 끌어내 2.5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두 명이 떨어진 뒤 황후가 복도로 따라 도망갔고 일본 남인들이 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가슴을 세 번 짓밟고 칼로 가슴을 난자했다. 몇 분 후 시신을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갔으며 얼마 후 그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이상은 웨베르가 전해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기술한 것들이다. 그러나 남인 속에서 직접 목격한 일본인 에조가 일

웨베르 러 공사 보고서로 명성황후 시해 전말 밝혀져 강간·살해 후 불태워... 숙릉에 안치·흥릉으로 천장

본 본국에 보고한 <에조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무리들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왕비를 끌어내어 두세 군데 칼로 상처를 입혔다(處刃傷). 나아가 왕비를 발가벗긴(裸體) 후 국부검사(局部檢査) (옷을 벗) 일이다. 또한 노할(怒) 일이다를 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기름(油)을 부어 소실(燒失) 시키는 등 차마 이를 글(筆)로 옮기기조차 어렵다. 그 외에 궁내부 대신을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殺害)했다.' 이것은 남인들이 명성황후를 발견하고 강간 후 살해했다는 것을 말한다. 전술할 일이다. 역사는 이것을 을미사변이라 부른다. 이 사건을 저지른 일본은 고종으로 하여금 폐위해 서인(庶人)으로 전락시키도록 강요했다. 총명했던 여인, 시아버지와 정적이었던 여인, 책략과 수완이 능란했던 여인은 그해 10월 10일, 신원(伸

冤) 태원전에 빈전이 설치되고 국장에 의해 숙릉에 안치됐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후 민비는 명성황후로 추존됐다. 그해 11월 21일, 능을 오늘날의 청량리 천장산 아래로 이장해 능호를 흥릉이라 했다. 고종은 흥릉에 잠든 명성황후를 보러가기 위해 종로에서 청량리까지 전차길을 놓기도 했으나 흥릉이 길지가 아니라는 풍수설이 대두돼 천장문이 일었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남양주시 금곡에 능역을 잡고 신역을 시작했다. 같은 시각 청량리 흥릉에서도 능을 파기 시작했다. 2월 16일 명성황후가 먼저 금곡으로 이장됐다. 3월 4일 전날 발인한 고종은 명성황후와 합장됐다. 그들은 21년 만에 지하에 함께 잠들었다. 망국의 황제는 능호도 없다. 흥릉은 부인 명성황후의 능호이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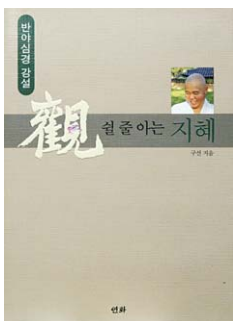
구선스님과 함께 하는 치유명상

- 일정 : 매주 4박 5일 (1회 20명 한정)
- 대상 : 여름에도 추우신 분, 겨울이 너무너무 싫으신 분, 손발이 찬 분,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 상기병, 그밖에 각종 면역성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
- 문의 : 010-4589-1897
- 치유명상의 특징과 효과 : 자율리명상과 식이요법을 병행, 냉기 제거와 장부순화, 신경순환의 차폐 중종예방, 우울증 스트레스해소, 면역력 강화
- ※ 뼈 속에 박힌 냉기까지 남김없이 뽑아드립니다.

12연기만다라 및 한글자음만다라 전시회

- 일정 : 2008년 12월 5일 - 11일(목요일)
- 장소 : 법련사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 02-733-5322)

- 본원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36-3 / 070-8104-8145, 010-2655-8145
- 산본지원 : 군포시 산본동 1061-1번지 현대아카데미상가 401호 사암아침찬의원내
- 동대문지원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62번지 3층 동천선원 / 070-8247-8152, 010-8004-4678
- 대전지원 : 대전시 서구 탄방동 702번지 한빛빌딩 3층 청심연치점 / 011-658-9817
- 보령지원 :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392-2 대명암 / 010-9948-6325
- 연희사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887-2번지 / 010-2655-8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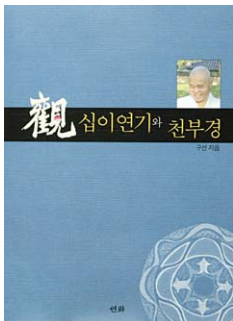


[구선지음 / 368쪽]

관 실 줄 아는 지혜

'관' 수련의 목적은 자기를 아는 데 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 근본과 자기 면모, 그리고 자기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이다. 자기 근본이란 자기의식이 비롯되는 자리를 말한다. 자기 면모란 자기를 이루고 있는 의식체계를 말한다. 자기 존재 목적이란 세상 속에서의 자기 역할을 말한다.

■ 상세내용 : 반야심경에 관의 심지법에 입각해서 해석한 책. 조건과 법과 오온의 발현법, 개공의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견성 이후의 수행법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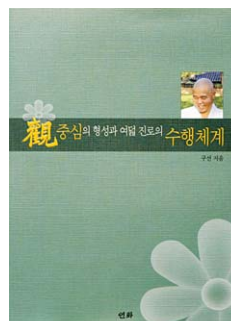


[구선지음 / 376쪽]

관 심이연기와 천부경

생명에게 무명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밝은 성품이 일으키는 행의 현상과 심의, 그리고 밖의 경계이다. 만약 생명이 그런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본성을 망각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밝음을 얻은 것이다. - 「심이연기」 중에서 생명이여 당당하라. 그리고 일체 생명을 평등하게 보아라. 저의 나의 심의에 심어지고 나는 저의 심의에 심어지니나 경건하고 정중하게 못 생명을 바라보라. - 「천부경」 중에서 -

■ 상세내용 : 생명이 최초로 시발되는 과정과 육체의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생명이 그 존재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심이연기법과 천부경은 그 내용 속에 서로 부족한 것을 때우어 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 책은 심이연기와 천부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두 사상의 깊은 뜻을 살펴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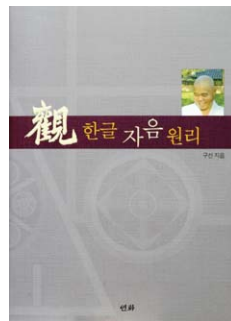


[구선지음 / 312쪽]

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수행자가 한 경계를 대할 때는 여덟 가지 진로로 그 나아갈 바를 삼을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일러 여덟 가지 진로라 말하는가? 첫째는 자기 중심을 통해 조건을 행하는 일이다. 둘째는 자기 근본의 일이다. 셋째는 자기 면모의 일이다. 넷째는 각성을 증득하는 일이다. 다섯째는 자기 존재목적 실현하는 일이다. 여섯째는 좀 더 넓은 교류성을 갖추는 것이다. 일곱째는 자기 인식의 틀을 넓히는 것이다. 여덟째는 자기를 제도하는 것이다.

■ 상세내용 : 대승의 삼관법에 입각해서 견성오도에 이르는 법을 제시. 용수로부터 전제된 대승불교의 수행체계를 여덟 진로에 입각해서 이층 단계로 구분해 놓았다. 특히 중관을 통해 선정을 얻는 법과 공관을 통해 삼매를 얻는 법, 가관을 통해 자기면모를 개발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구선지음 / 256쪽]

관 한글 자음 원리

문자는 자기의식을 담은 그릇이요, 사상을 담은 그릇이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심성이 달라진다.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쓰는 이는 유순해지고 심성이 교와지며 거친 말, 격한 말을 쓰는 이는 심성이 거칠어진다. 처음에 한글을 만들 때부터 이런 효과를 알고 만들었다. 한글은 철학적, 사상적 체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체계를 일깨워줘서 오장의 혼성을 활용하는 법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가장 상위의 문자체계이다. 가장 안정된 신경체계, 가장 안정된 경락체계, 가장 안정된 장부체계를 갖추어서 머릿골속에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글 자음 수련의 목적이다.

■ 상세내용 : 한글 자음원리를 통해 생명이 자기완성에 이르는 법을 제시. 한글 자음원리란 심이연기의 과정 중, 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자음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자음원리란 행의 원리이면서 수행의 방법이다. 자음원리를 통해 수행하게 되면 생명의 연지에서 벗어나 진언문에 들어가게 된다.